

중국 성인 여성의 연령별 계측치 비교 -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

손희순* · 임순** · 석혜정[†]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 경희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의 체형을 각 거주 지역(북경·상해)의 연령대(20대, 30대, 40대)별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성인 여성의 각 거주 지역의 연령대별 신체 계측치를 비교한다.
2. 중국 성인 여성의 각 거주 지역의 연령대별 요인점수를 비교한다.
3. 중국 성인 여성의 각 거주 지역의 연령대별 유형의 분포 경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은 중국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는 20세에서 49세 성인 여성 578명을 대상으로 인체 계측하였다. 계측 시기는 2002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였고, 계측 항목은 79항목이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 요인분석, 일원분산분석, 군집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는 20에서 49세 중국 여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 비만과 상관 이 높은 너비, 두께, 둘레 항목과 길이 항목 중 횡적 길이 항목이 증가하였으나, 키를 비롯한 높이 항목에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길이항목 중 종적 길이 항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반신이 길고, 엉덩이길이가 길어, 다리가 짧고, 가슴이 쳐진 형태였다.
2. 북경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연령대별 요인점수를 비교하면 요인 1 비만과 요인 6 엉덩이 길이'가 차이가 있었고, 상해에 거주하는 여성은 요인 1 비만, 요인 2 높이, 요인 3 상반신길이, 요인 4 '발목굵기, 요인 8 가슴형태가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다.
3. 북경에 거주하는 여성의 각 연령대별 대표적인 유형은 2,30대는 유형 2(어깨가 쳐졌고 엉덩이길이가 길며 키가 작고 왜소한 체형), 40대는 유형 5(가슴둘레와 밑가슴둘레의 차이가 다른 유형에 비해 커서 유방이 크고, 가슴이 쳐졌으며 키는 작고 뚱뚱한 체형) 였고, 상해에 거주하는 여성은 20대는 유형 3(상반신과 엉덩이 길이가 짧고, 어깨가 솟은 형태이고, 키가 작고 왜소한 체형), 3,40대는 유형 5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의 체형은 각 거주 지역의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고, 또한 이 차이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국 패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과 연령에 맞는 기성복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